

개신교와의 대화

— 불교적 전제와 대안 —

김종명**

머리말

- I. 췌발 현황
 - II. 근본주의적 인식과 반불교관 형성
 - 1. 근본주의적 인식
 - 2. 반불교관 형성의 원인과 영향
 - III. 종교간 대화를 위한 대안
 - 1. 근본주의적 인식의 극복
 - 2. 불교의 성격 이해
 - 3. 인류 구원론으로서의 종교
- 맺음말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약 70%는 종교간 갈등에 의하여 일어나고 있다. 21세기 세계질서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인자도 종교다. 따라서, 세계의 파멸을 막기 위해서는 종교적 공통점을 공유하는 문명권 국가들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머리말

미국 하버드대학교<<(Harvard University)>>의 석좌교수며, 정치학자인 새뮤얼 헌팅턴(Samuel Huntington)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그의 저서 『문명의 충돌과 세계질서의 재편』(*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1996)¹⁾에서 이러한 요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리고

* 서강대학교 종교학과 계약교수

1) 이 논문의 초고는 원래 종교간 대화 논문 모음집인 『생명과 평화의 연대-종교간의 대

그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점에서 종교간의 대화는 크게는 인류의 미래를 위한, 그리고, 작게는 “세계종교백화점”으로 간주되고 있는 한국²⁾에 사는 한국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현대 지구촌 사회의 특징 중의 하나는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란 점이며, 이런 면에서는 종교계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역사적 산물로서 종교계에서 전개된 새로운 인식들은 종교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³⁾로 불리고 있다. 특히, 한국은 “세계종교의 용광로”인 동시에, 동양종교와 서양종교가 비슷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다(강돈구 1994 : 411). 한국의 종교계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힘입어 종교간 대화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으며, 특히, 실천과 이론 양면에서(윤이홍 1994 : 39)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체계적, 지속적으로 이 운동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진보적 개신교계가 주도해 온 한국의 종교간 대화운동은 한국의 종교상황 개선에는 별 기여를 하지 못해 왔다. 그 이유는 개신교계가 선협적 이념을 중심으로(윤이홍 1994 : 24) 단원의식(근본주의적 의식) 속에서(정진홍 1994 : 80) 대화를 지배해 왔기 때문이다(김종서 1994 : 231-234). 더욱 중요한 문제는 1945년 해방 이후 한국 개신교계는 보수주의자들이 주류를 이루어 왔으며, 현재까지도 [종교간 대화를 주도해 온] 자유주의적 개신교인들은 소수 집단을 이루고 있는데 비해 보수적 교회가 전체의 약 95% 가량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의 영향력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이원규 1991 : 240-241)는 점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대화”란 동등한 입장에서 서 있는 쌍방이 특정한 주제를 같이 논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종교간 대화”란 주제에 관한 한 불교계와 개신교계의 현실적 관계는 대화의 단계 이전에 선결되어야

화 역사 35년』(서울 : 크리스천 아카데미, 2000 예정)을 위해 집필되었으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실리지 못하였다. 이 논문의 초고를 읽어 주신 길희성, 박해당, 서정형, 심재룡, 윤원철, 최준식, 허인섭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길희성 선생님의 중요한 논평들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리고, 이 논문에 등장하는 외국인명은 세계학계의 관례에 따라 그 나라 발음에 의해 표기하였다.>>

이 책의 한글 번역판은 이희재 옮김 1997 참조.

- 2) 이 논문에서의 “한국,” “한국인”이란 단어는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한 입장에서 쓰인 단어며, 길희성이 그의 논문(2000) 중 “I. 한국불교의 정체성 담론”에서 “한국학”이란 개념을 사용한 것과 취지를 같이 하는 것이다.
- 3) 종교가 하나가 아닌 여럿이라는 현실 인식의 결과 나타난(정진홍 1994 : 80) 종교다원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1937-1945) 후, 세계가 지구촌이 됨에 따라 다양한 종교적 전통을 가진 종교인들 사이의 긴밀한 유대 관계 유지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쓰이기 시작한 단어로서 1960년대말부터 종교철학과 종교신학 운동이 일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윤이홍 1994 : 18-19).

할 사항이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 천도교를 일반적으로 들고 있으며,⁴⁾ 그 중 불교, 개신교, 천주교는 한국의 3대 종교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종교다원주의에 관한 논의에서는 개신교의 타종교계에 대한 시각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개신교가 20세기 초 이래 한국 사회의 각계 각층에 미친 영향이 크며, 그 영향력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의 종교간 갈등에서 개신교는 가해자적 입장에서 왔기(김중서 1994 : 240-241) 때문이다. 특히, 불교계는 타종교에 대한 배타성이 약한데도 불구하고(이원규 1994 : 182), 개신교계로부터는 여러가지 면에서 피해를 입어 왔다. 그러므로, 한국에서의 불교와 개신교 사이의 진정한 종교 대화는 불교에 대한 개신교계의 편견이 불식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제 아래 이 글에서는 (1) 훼손(毀佛) 현황; (2) 근본주의적 인식과 반(反)불교관 형성; (3) 종교간 대화를 위한 대안 등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기로 한다.

이 논문의 중요 참고 자료는 중국과 한국의 대표적 종교대화론서에 속하는 중국 송나라 장상영(張商英, ?-1128)의 『호법론護法論』⁵⁾과 조선초기 기화(己和, 1376-1433)의 『현정론顯正論』⁶⁾ 및 한국에서 전개된 다양한 형태의 종교다원주의에 관한 논의를 다룬 『종교다원주의와 종교윤리』(1994) 등이다. 글쓴이는 이 글을 통하여 한국의 보수적 개신교계가 다원주의적 입장에서 서서 불교의 성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게 될 때, 두 종교 전통간의 진정한 대화가 가능할 것임을 주장하면서, 이러한 논의가 더욱 바람직한 방향에서 미래의 종교대화운동이 전개될 수 있는 방법론 모색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 훼손 현황

한국불교계가 개신교계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은 언론 보도 뿐 아니라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 승려의 증언 등을 통해서도 밝혀지고 있다. 1998년 6월 26일 제주도 원명선원에 있던 750기에 달하는 나한상을 김수진이라는 개신교도

4) 1995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종교유형별 인구 분포도 (<http://www.nso.go.kr>)도 이들 6대 종교를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다.

5) 張商英 述. 『護法論』, 『大正新修大藏經』(이하 T) 2114.52.638a-646b.

6) 己和 撰. 『顯正論』, 『韓國佛教全書』(이하 『한불』) 제7책 조선시대 편 : 217a-225c.

가 때려부순 훼손사건(최준식 1999 : 60)에 대한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 국내 언론은 다시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었다 :

“실정법상 타종교의 숭배물을 훼손·철거할 수 없으니 안타까울 뿐이며, 용기 없음에 한탄할 뿐이다.” [1998년] 9월초에 발행된 개신교의 한 신문인 <하늘나라>에 실린 사설 “전국토 우상제거 앞당기자”의 한 구절이다... “금년 장마철에 일어난 게릴라식 폭우를 잘 검토해 보면 그 곳이 대부분 최대 불상, 컷다 불상 등이 있는 지역이었다는 견해도 있다. 우상의 목이 잘린 제주에는 피해가 없지 않았던가”라며 아예 선량한 다수의 신도들을 훼손대열에 몰아넣고 있다(정성운 1998).⁷⁾

이처럼, 개신교의 특정 언론이 훼손을 선동하고 있는 가운데 일련의 훼손사건이 국내에서 계속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서는 세계언론과 종교학계도 관심을 보이게까지 되었다.

한국의 훼손사건은 세계 주요언론의 관심사가 되었다. 이어 미국종교학회(American Academy of Religion, AAR)는 한국정부와 훼손사건의 범인 또는 용의자가 소속된 보수적 개신교단, 세계개신교회협의회(WCC)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키로 했다... 미국 종교학회는 또 훼손에 대한 위로의 표시로 회원들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벌여 1차로 모은 2만 달러(약 2천 4백 만원)를 종교편향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원혜, 송강스님)에 [1999년] 2월중 전달한다(정성운 1999).⁸⁾

이 기사에 의하면, 개신교계에 의한 훼손은 이미 세계 주요 언론에서도 다뤄졌을 뿐 아니라 외국의 저명한 종교학술단체까지도 공식적으로 항의서를 보내고 모금을 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후에도 훼손 사건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

해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연례행사처럼 일어났던 사찰방화와 파괴, 김태복 소장 시주금 뇌물적용 재판 등 군내의 종교편향, 백령도 면장의 불교행사 방해 등 각급 기관의 종교편향 사례,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영생교 등의 불교왜곡 행

7) “훼손 부추기는 ‘하늘나라,’” webmaster@seon.buddhapia.co.kr로도 검색 가능.
8) “미종교학회 한국 훼손에 관심,” webmaster@seon.buddhapia.co.kr로도 참조 가능.

위 등은 국민의 정부 들어서도 여전하다. 특정 종교인들의 그릇된 신앙심에서 비롯된 훼손행위는 다종교사회인 우리 사회의 근본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므로 사법당국은 이들을 엄벌에 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정신병자의 소행”이라는 말만 되풀이 해 왔다. 경찰청은 지난 [1999년] 3월 조계종 포교원과 종교편향 대책위를 방문, “헌법 제20조(종교의 자유)의 근본 취지에 입각하여 특정종교에 편향됨이 없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찰 화재 및 훼손, 도난 사건에 대한 예방과 범인 검거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불교계는 그동안 많은 훼손사건을 겪었고, 많은 범당이 알 수 없는 불길에 휩싸였지만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 일도 별로 없었고, 범인이 체포된 일도 거의 없었다(김재경 1999 : 1).

이 보도에 따르면, 불교계가 개신교도들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은 최근의 일이 아닐 뿐 아니라, 그 횡수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당국의 대처는 미미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한, 훼손 행위는 물질적 파괴 뿐 아니라 교리적 왜곡의 형태로도 나타나고 있다 :

[1999년] 『신앙계』 7월호에는 “야소가 이땅에 오면 내가 깨달은 도는 꺼진 등불(何時耶蘇來 悟道無油燈)”이란 말이 부처님의 마지막 유훈이라고 주장하는 순복음교회 김동일 장로의 글이 발표되었다. 일부 개신교인들이 이 한문어구를 스티커로 만들어 자동차에 부착하여 봉은사 앞에서 시위를 하며 불교를 비방했다는 소식도 들었다. 부처님이 예수님의 출현을 예언하고 예수님이 출현하면 불교는 기름없는 등불이 되어 자취를 감출 것이라는 주장이다. 『신앙계』는 “하시야소래 오도무유등”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한 마지막 가르침이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전혀 근거없이 조작된 말이다. 김동일씨는 『라마다경』이란 스리랑카에 보관된 경전에 나온다고 얼버무렸으나, 필자가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초기불경이건 후대 대승불경이건 그러한 경전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전재성 1999 : 6).

현재 한국에서 수행승으로 있는 미국인 현각(본명 : 폴핀젠)⁹⁾도 개신교인들로부터 자신이 직접 받은 피해 경험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었다 :

9) 그는 서양철학 전공으로 예일대학교(Yale University) 학부과정을 졸업하였으며, 비교종교학 전공으로 하버드대학교(Harvard University)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가 한국에서 선승으로 지내면서 운수행각(雲水行脚)을 하는 과정을 그린 데 대해서는 *Cloud Path*(CH 50 아리랑 TV 1998년 5월 3일자 영문판 비디오) 참조. 이 것의 한글판은 후에 “만행군행”이란 제목으로 방영되었다(CH 9, KBS 1, 1998년 11월 15일자 “일요스페셜” 참조).

96년 내가 묵고 있던 화계사에 세번이나 불이 났다. 경찰 조사 결과 범인들은 모두 개신교인들이었다... 우리 마음에는 놀람과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까지 일게 되었다. 이곳은 우리가 사는 집이다. 그런데 어떻게 신념이 다르다고 몇번씩이나 불을 지를 수 있단 말인가? 전통적 개신교 나라인 미국에도 수백개의 사찰이 있지만 어느 누구도 불을 지른다든지 탕화를 훼손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다. 만약 다른 문화, 전통에 대한 파괴행위가 일어난다면 모든 종교지도자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현각 1999 : 9).

한국의 정부당국이나 종교계의 지도자들은 현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훼손사건들을 대수롭지 않게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훼손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국내보다도 종교간 대화운동이 먼저 전개되었으며, 그 활동이 여전히 활발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의 시각에 의하면, 훼손사건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되는 일"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개신교계는 훼손사건이 일어날 경우 그런 사건을 광신도의 개인적 범죄로만 돌리면서 관행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언론이나 정부도 가능한 한 침묵으로 일관하곤 해 왔다(최준식 1999 : 60-61). 그러나, 국내에서 일어난 훼손사건들은 정부당국이나 가해 종교계의 주장처럼 단순히 일부 "정신병자들"에 의해서만 자행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위의 인용문들에서 나타난 것처럼, 개신교계의 언론, 광신도, 목사 등 다양한 채널에 의해서, 그 방법도 불상파괴, 신문 사설, 잡지 기사, 방화, 교리적 왜곡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전개되고 있으며, 세계적 규모를 자랑하는 순복음 교회까지도 관계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 교회의 대부분은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는 점도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러면, 개신교인들에 의한 이러한 훼손사건의 원인은 무엇이며, 그로 인한 영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글쓴이는 현재의 훼손사건들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산물인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한국 개신교계의 훼손 내지 반불의 근원적인 원인과 그로 인한 영향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II. 근본주의적 인식과 반불교관 형성

글쓴이는 훼손의 가장 큰 원인은 보수적 개신교인들이 근본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불교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그리고, 한국에 개

신교를 전한 서양 선교사들의 불교관이 한국 개신교인들의 반불교관 형성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그것은 나아가 국내의 교과과정 편성 및 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불교의 성격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훼손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 근본주의적 인식

현대주의에 맞서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한 목적에서(이원규 1998 : 163) 1911년 미국에서 등장한 근본주의(fundamentalism)는 보수적 정치세력과 동맹하여 국가, 가족, 교회 등에서 펼쳐지는 자유주의 운동을 공격하는 종교운동을 말한다. 근본주의는 성경의 영감설(靈感說)과 절대 무오설(無誤說)(the inerrancy of the Bible)¹⁰⁾을 그 어느 신앙집단보다도 강조한다(이원규 1998 : 137-138).

역사적으로 한국 교회는 근본주의 경향이 강했다. 한국에 개신교를 처음 소개한 초기의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 이식한 신앙유산은 근본주의 신학에 기초한 것이었다. 따라서, 처음부터 한국 교회에는 미국의 근본주의적 신앙이 쉽게 뿌리 내릴 수 있었다(이원규 1998 : 162-164). 이러한 근본주의 전통은 현대에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아래의 결과는 한국교회의 신앙구조가 근본주의 성향에 매우 가까움을 보여주고 있다(이원규 1998 : 159). 전국의 평신도와 목회자 표본 자료인 『한국교회 100년 종합조사연구』(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82)의 자료에 나타난 한국 교회의 일반적인 근본주의 성향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동의율)는 <표 1>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

<표 1> 한국 교회의 근본주의 성향 분석

항목	평신도	목회자
축자영감설 ¹¹⁾	92.3%	84.9%
예수동정녀탄생설	96.3%	97.0%
예수재림설	94.8%	98.3%
성경의 기적설	94.6%	94.6%
예수부활설	70.8%	91.4%

10) 성경은 영감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 전혀 과오가 없는 절대적인 신앙의 표준이요 근거가 된다는 설(이원규, 1998 : 149).

11) 성경은 자자구구 하나님의 말씀이란 설.

더욱이 타종교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평신도의 62.6%, 목회자의 70.9%가 “기독교의 진리만이 참 진리”라는 배타적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배타주의 성향은 다른 종교들에 비해 개신교가 월등히 강하며, 보수 교단의 경우, 그리고 종교성이 강할수록 더욱 두드러진다(이원규 1998 : 160). 결론적으로, 한국 교회의 경우 교리적 신앙, 신학, 성경에 대한 이해, 신앙적 실천, 도덕생활 기준에 있어서 근본주의 성향이 매우 강하다. 종교적 배타성, 권위주의 성향, 구원관, 선교관, 종말론, 섭리주의, 정치의식,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근본주의 성향이 강한 편이다(이원규 1998 : 162). 따라서, 한국 교회의 일반적 특성은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한 데서 찾을 수 있으며, 그것은 타종교에 대해서는 배타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신교인들의 강한 배타성에 대해서는 글쓴이도 경험한 적이 있다. 글쓴이가 1990년대 초 미국 유학시절 대학원생 전용 기숙사에서 1년간 생활을 한 적이 있었다. 그 때, 그 기숙사에는 한국인 유학생들(대부분 박사과정)도 10여명 있었는데, 그 중의 약 70%는 개신교인들이었다. 그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글쓴이는 개신교 신자 유학생들이 개신교에 관한 한 자신들의 견해와 다를 경우에는 전문 신학자들의 견해까지도 잘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글쓴이는 “각자의 전공분야에서는 지도교수의 강의를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인데, 왜 종교에 관한 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가? 장차 학위를 받은 후 각자의 전공영역에서 활동하게 될 때 이러한 배타성이 그대로 이어질 땐 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풀리지 않는 화두로 남아 있곤 했던 것이다.

미국인 승려 현각도 이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담을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

지난 여름 어느 일요일 봄비는 지하철 안이었다... (어떤 남자가) 내 귀에 바싹대고 뭔가 소리를 질러대는 것이었다. 가만히 들어보니 “오직 성경만 읽어라. 오직 예수님만 믿어라. 예수님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다. 하도 놀라 삼복더위에도 몸이 떨렸다... 난 마음 속으로 그에게 말했다. “저는 이미 어려서부터 성경을 수십번도 더 읽었는데요. 하바드대 신학대학원에서 성경을 따로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화계사 국제선원 스님들도 모두 겪은 일이다(현각 1999 : 9).

따라서, 개신교 근본주의적 시각에 입각한 배타주의적 태도가 현대 한국 개신교계에 상당히 넓게 퍼져 있으며, 나아가 불교에 대한 거부감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점

은 부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처럼, 근본주의적 보수주의에 대한 반성이 촉구되고 있는 가운데서도(이원규 1991 : 272) 한국의 개신교인들은 사실 불교에 대한 거부감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한국 개신교인들이 불교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게 된 원인은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가?

2. 반불교관 형성의 원인과 영향

현대 한국의 개신교인들이 불교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게 된 원인은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글쓴이는 특히, 한국에 개신교를 전한 서양 선교사들의 불교관과 그것의 한국적 전개에 주목하려 한다. 그 이유는 한국 프로테스탄트교회는 “미국의 종교적 근본주의”를 거의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이원규 1991 : 239-272)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아래 성립된 한국 개신교인들의 불교관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불교계에는 불리하게 전개되었는데, 특히, 한국의 교육과정 성립과 한국정부의 일단의 정책 수립 및 일반 한국인의 불교관 형성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보수적 개신교 신자들이나 목회자들에 의해 휩쓸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본다.

1) 반불교관 형성의 원인

[서양의] 종교인들 [개신교인들]은 불교를 무신론적 철학이자 정신의 과학이라는 이유를 들어 거부해 왔다(장-프랑수아. 마티유 1999 : 38). 유대-그리스도교의 일신교적 전통에 따라 “신에 대한 인간의 신념 체계”로 정의되어 온 “종교”란 단어의 정의에 의하면, 절대자로서의 신, 신의 말씀을 적은 경전 및 신과 그 말씀을 따르는 교단의 존재는 종교 구성의 3요소였다. 이런 인식을 속에서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동양에는 종교가 없다는 주장까지 등장하게 되었다(Eliade, vol. 11, 1993 : 283). 한국인 자체의 노력에 의해 수입되고 뿌리내린 천주교와는 달리, 개신교는 주로 미국 선교사들의 선교에 의하여 소개되고 발전되었으며, 그들의 불교관도 서양 개신교인들의 일반적인 불교관과 다르지 않았다. 즉, 그들은 불교를 미신으로 간주하였던 것이다(Grayson 1985 : 139). 따라서, 한국의 초기 개신교인들의 불교관 형성에 미친 이들 선교사들의 영향은 컸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개된 한국 개신교계의 불교관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한 가지는 종교로서의 불교며, 다른 한 가지는 철학으로서의 불교다. 종교로서의

불교란 시각은 미신 혹은 우상숭배의 종교 혹은 기복종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며, 철학으로서의 불교란 관점은 불교가 “절대적, 궁극적 가치체계”인 종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제1공화국이 수립된 1948년이래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지도층에서 개신교 인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크며, 따라서, 한국의 교육정책과 사회정책에 미친 이들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수립 이후 “교육입국”을 표방할 정도로 교육은 가장 중요한 국가적 이슈 중의 하나였다. 부존자원이 별로 없는 한국에서 가장 믿을 만한 자원은 잘 교육받은 인적자원이란 점은 자타가 공인해 온 사실이며, 교육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은 여전히 세계적이다. 그리고, 한국의 교육은 교육부(과거의 문교부)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개신교인들이 교육계에 미친 영향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그들이 가졌던 불교관이 일반인들에게도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개신교인들의 교육계에서의 역할과 그러한 틀 위의 교과과정을 이수한 인재들에 의해 수립된 일단의 정책 등을 불교와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2) 반불교관의 영향

(1) 교육과정에 미친 영향

한국의 중요한 지적 유산인 불교는 제도권 교육과정에서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았다. 한국 근대교육의 교과과정 편성 참여자들의 종교성도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1945년 광복과 더불어 교육 근대화의 문제는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였다. 그리고, 한국 현대교육의 실질적 뿌리는 광복 후의 미군정기(1945-1948)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교육학계의 정설이다. 당시의 교육기관중 조선교육심의회(朝鮮教育審議會, National Committee on Educational Planning)의 역할은 그 때 이후 한국 교육의 방향을 결정지었다. 조선교육심의회는 교육계와 학계의 권위자 100명에 의한 10개 분과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특히, 제1분과인 교육 이념 분과에서는 한국 교육의 이념과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적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제1분과에는 안재홍, 하경덕, 백낙준, 김활란, 홍정식 등을 포함한 7명이 참여하였으며, 특히, 안재홍과 백낙준은 교육 이념을 설정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문교40년사』 1988 : 45). 그러나, 이때 편성된 교육과정에는 한국불교학을 포함한 전통문화 관련 과목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어 왔다. 그러면, 그러한 전통문화 관련 과목들이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은 어디에 있는가? 전통문화 관련 과목이기 때문에 다루어져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외래 문화의 수용도 스스로의 문화적 정체성 위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할 것이다. 그렇다면, 스스로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되는 전통문화 관련 과목에 대한 교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사정은 그렇지 못했다. 일례로, 현대 한국에서 연구되고 있는 철학 분야는 한국철학을 포함한 동양철학과 서양철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둘 중 서양철학이 압도적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동양철학계든 서양철학계든 철학사별, 철학자별, 주제별 등 다양한 면에서 전통적으로 학문적 편식성을 보여 왔다. 이것은 우리의 학문계가 학문 외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은 면이 크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김종명 1999 : 189-215). 따라서, 1945년 이후 제도권 내의 교과과목에서 철학적 요소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불교를 포함한 전통문화 관련 과목이 무시되다시피 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조선교육심의회 위원들의 개인적 종교 성향이 교과과정 편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가? 단정은 할 수 없으나 개연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중 4명이 자신의 종교를 밝히고 있었는데, 교육이념 마련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안재홍과 백낙준을 포함한 이들 4명은 모두 개신교인이었고(『문교40년사』 1988 : 53-57), 역사적으로 한국 종교인 중 개신교 신자들의 종교성이 가장 높으며, 또한 타종교에 대한 배타성이 가장 강하기(이원규 1994 : 203-205) 때문이다. 물론, 개신교 신자들이라 하더라도 각각 다른 성향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안재홍과 백낙준 등이 개신교 신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도 강한 종교적 배타성을 가졌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개연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전히 있을 수 있다: (1) 특히, 백낙준은 미국 체류시(1913-1927) 장로교 목사(a Presbyterian minister)가 된 후, 미군정하에서 서울대학교 재조직을 비롯한 교육 업무에 깊이 관여한 이래 1950년부터 1952년까지는 이승만 정부의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였으며,¹²⁾ 1961년 군사 쿠데타 후에도 원로 정치인이자 교육인으로 계속 활동하였다(Paik 1980 : 6-7); (2) 한국 역사상 성결교, 예장(예수교장로회), 침례교 등에 속한 보수 개신교도들의 종교적 배타성이 가장 컸다. 특히, 한국에서는 장로

12) 백낙준은 이 무렵 『고려대장경』의 우수성에 대한 영문 논문을 발표하였다(Paik 1951 : 62-78). 그러나, 그가 이 논문을 쓴 것과 그의 종교성 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할 것이다. 특정 종교인이 다른 종교 전통을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라도 자신의 종교성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예들이 많기 때문이다.

교의 교세가 가장 강하면서 배타성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현대 한국의 개신교 지식인들도 타종교에 대한 강한 배타성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대에 이르기까지 철학적 요소와 종교적 요소의 양면을 가진 불교학은 한국의 제도권 교육과정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한국학을 전공한 한 외국인 학자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1970년대에] 한국 서점엘 가보면 서양사상에 관한 번역서와 해설서 등이 책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으며, 고등학교 이상의 학생들도 다들 서양철학 과목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러나, 불교를 비롯한 동양사상에 관한 책은 서점에 비치되어 있는 양이 상대적으로 훨씬 적었을 뿐 아니라, 고등학교 이상의 과정에서도 거의 경시되고 있었다(버스웰 1999 : 9).

<<이 외국인 학자의 관찰은 정확했다고 할 수 있다. 글쓴이의 고등학교 시절이었던 1970년대 초반의 상황은 그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 초까지도 이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인들이 개신교를 근대화, 민주화, 사회경제적 발전이란 개념의 틀 속에서 받아들인 반면, 불교를 지난 수세기 동안 그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 준 반도시관과 퇴보적인 사회관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게 된 것(버스웰 1999 : 52)도 기존의 제도권 교육과정에서 불교 관련 과목이 소외된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교육부에서 발간된 중학교 교재에는 불교에 대한 것도 다루어지고 있는데,¹³⁾ 이러한 현상은 과거의 편집방침에 대한 반성적 결과의 산물인 것으로 생각된다.

(2) 정부 정책 수립에 미친 영향

해방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의 여론주도층 중 다수는 개신교계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 수립된 정부 정책도 불교계에 불리하게 작용한 예들도 있었으며, 그러한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¹⁴⁾ 더욱이 현대

13) 교육부에서 간행한 『중학교 도덕 1』(1999) 교과서 “인물학습” 편에는 원효(62-65쪽), 석가모니(65-68쪽), 일연(265-268쪽) 등이 포함되어 있다.

14) 일례로, 1988년 올림픽 개최시 행사 중의 하나로 연등회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후에 개신교 신자로 알려진 그 분야 실무 국장은 그것이 특정 종교 전통의 행사라 하여 재가를 하지 않았다가 여론에 밀려 재가를 하게 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최근의 언론도 정부 기관 등에 의한 종교적 편향의 가능성에 대해 불교계의 우려섞인 시각을 보도하고 있다 : 공종원 2000 : 3; <한겨레> 1999년 5월 24일; <경향신문> 1999년 11월 22일 참조.

한국 개신교인들의 종교적 배타성은 여전히 강하며, 현대의 한국은 법치국가를 표방하면서도 혈연, 학연, 지연 등을 바탕으로 한 사정(私情)에 의해 공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크다¹⁵⁾는 점은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3년 4월 말 현재 296명의 국회의원 중 종교인은 194명으로 전체 국회의원의 65%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중 개신교 신자는 약 50%, 천주교 신자는 약 30%, 불교신자는 약 18.6%를 차지하고 있었다(류성민 1993 : 18-19). 이러한 경향은 최근(2000년 4월 13일)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어느 언론에서는 “금배지 달려면 종교 있어야”라는 주제까지 달고 있었다. 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번 총선의 전국 227곳 지역구 당선자 중 종교를 가진 사람은 178명으로 전체의 78%에 달하였다. 한국 국민의 50%가량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정치인들의 종교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박기련 2000 : 3). 그리고, 전체 의원 수 273명 중 종교인별 비율은 기독교 34%(92명), 카톨릭 21-26%(56-70명), 불교 12%(32명)로 나타난다.¹⁶⁾ 그리고, 의사, 한의사, 약사, 4년제 대학교수, 변호사 등을 포함한 전문인력 중 종교별 인원현황 통계에서도 개신교도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¹⁷⁾

따라서, 개신교인들이 한국사회의 상층부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종교와 정치가 헌법상으로 분리되어 있는 현대 한국사회에 있어서도 개신교가 사회세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입장에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김영모 1982 : 191-193, 222-223).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종교의 사회적 세력화가 종교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들이 사회세력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류성민 1994 : 115).

15) 길희성 2000 : 69;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현안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시도된 일단의 젊은 지식인들의 담론에 대해서는 황필홍 외 1997 참조.

16) “종교별로 본 16대 의원 당선자,” <법보신문> 2000년 4월 26일, 15면.

17) 불교전문 인력은 적으며, 교육과 조직 또한 아주 저조한 편이다. 1997년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통계에 의하면, 전 인구 중 불교도는 20.3%, 기독교도는 18.3%, 카톨릭교도는 7.4%로 나타난다. 따라서, 인구비례로 보면 불교전문인구는 18%가 되어야 하지만 통계상 1%를 넘지 못하고 있다. 불교도 전문인력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의사 4만3천5백 명 중 1% 미만; 한의사 9천2백여명 중 0.5%; 약사 2만8천8백명 중 0.006%; 4년제 대학교수 3만8천여명 중 0.2%; 변호사 3천4백85명 중 0.4%(<불교신문>, 불기 2542(서기 1998)년 5월 5일 15면).

Ⅲ. 종교간 대화를 위한 대안

개신교계는 불교계에 대하여 가해자적 입장에서 서 있는 만큼, 개신교계와 불교계의 진정한 대화를 위해서는 전자의 근본주의적 인식의 극복과 불교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사람들마다 인생관과 세계관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두 종교전통은 개신교나, 불교나라는 종교별 구분을 바탕으로 한 교세 확장이나 기득권 확보에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인류 구원이라는 종교의 본래적 사명에 입각하여 나뉠대로의 특징적인 가르침으로써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1. 근본주의적 인식의 극복

개신교계는 단원주의적(근본주의적)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인식은 개신교의 교주인 예수의 가르침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선협적 틀에서 벗어나기와 타종교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기존의 종교대화운동의 역사적 교훈으로 제시되고 있기도 하기(윤이흠 1994 : 51) 때문이다. 현대의 한국사회에는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으나, 종교간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은 크며, 그 근본요인은 종교적 배타성 때문이다(이원규 1994 : 173). 타종교에 대한 종교적 배타성은 개신교가 가장 강하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보수교단에서 크게 나타난다. 배타성을 규정하는 요인들은 종교, 교파, 개인의 종교성향 등(이원규 1994 : 203-205)도 지적되고 있으나, 그 중 단원주의적 인식이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윤이흠 1994 : 24; 정진홍 1994 : 80).

종교다원주의 사회인 현대에서는 다양한 종교적 가르침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자신이 믿는 종교만이 최고라는 근본주의적 인식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예수, 석가모니, 공자 등의 옛 성자들도 이 점을 누누히 강조하였다. 예수의 삶에 대해 현각은 말한다 :

예수님은 결코 종교나 교단을 만든 적이 없다. 그분은 “내가 옳다. 너만 진정한 제자다”라고 특정인을 감싼 적도 없었다. 그분은 늘 매춘부나 범죄자와 같은 소외 받은 이들과 함께 하면서 “내침”이 아니라 “포용”의 삶과 정신을 증거하였다. 이점이 예수님을 위대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기 위해 오셨지만, 아주 소견이 좁은 이들은 이를 증오의 독트린으로 변질시킨다.

재미있는 것은 정작 개신교 종주국이라 할 미국엔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현각 1999 : 9).¹⁸⁾

석가모니 역시 사람들이 자신의 가르침까지도 검토하고 성찰해야지, 단순히 자신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항상 주장하였다(장-프랑수아. 마티유 1999 : 39). 공자의 경우도 그가 죽은 후 후세 사람들에 의하여 반신격화(半神格化)까지 되었지만, 공자에 대한 그러한 존경심은 그의 본래 의도를 곡해한 것이다. 공자는 분명히 선한 행동이나 도덕적 행동에 대한 기준도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견지에서 어떤 절대적 진리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 또한 어떤 절대적 진리가 있다고 해도, 그것에 대한 우리들의 지식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고 믿었다(황필호 1999 : 286). 성인의 말씀을 공부한 현자들도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었다.

중국 송대의 유학자 장상영은 자신의 『호법론』을 통하여 들은 말과 읽은 글 자체에 묶이지 말 것을 주장하고 있었다 :

향나무로 만든 단 앞에 모인 3천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공자의 가르침을 이해한 사람은 안연 한 사람 뿐이었으나, [그도 공자와는] 한칸의 차이가 있었다. [석가모니가 가르침을 퍼던] 영산에 모인 수 많은 사람들 중 깨달음을 얻은 이는 가섭 한명 뿐이었다. 하물며 성인과는 수천년이나 떨어져 있는데, 그 풍모에 대해 듣고 그 가르침을 기록한 책을 읽어서 모두 성인의 경지에 이르려하는 것은 또한 어렵지 않은가?¹⁹⁾

조선초기의 대표적 학승 기화도 중요한 것은 가르침을 담은 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임을 강조하면서, 그 출처는 중요하지 않음을 역설하였다 :

책이란 도를 실는 도구며, 가르침을 위한 방편이다. 그 책을 보면 그 도를 따를만한가 따를 만하지 않은가를 안다... 그 [책 속의] 도가 따를 만하다면... 어

18) 글쓴이가 유학생할 중 만났던 미국인 동료들 중에도 기독교 신자임을 자칭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그러나, 현각의 지적처럼 그들에게서는 타종교에 대한 배타성을 별로 발견할 수 없었다.

19) 『호법론』 T 2114.52.638a1-5 : 杏壇三千之衆得夫子之道者 顏子一人而已 尙未達一間 靈山百萬徒衆 悟玄機者 迦葉一人而已 況望聖人數千載之間 聞其風讀其書 咸欲造聖人之域 不亦難乎.

찌 내가 배운 것이 아니라 하여 그것을 없앨 수 있겠는가?²⁰⁾

따라서, 옛 성인들은 자신의 가르침만 따를 것을 강요하지도 않았으며, 후대의 뛰어난 지식인들도 말과 글에 묶여 가르침의 참 뜻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대의 지식인 수행승 현각도 중요한 것은 개신교나 불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르침임을 강조하고 있다 :

사람들은 어떻게 가톨릭 신자에서 불교신자가, 그것도 수행자가 됐느냐고 묻는다. 그럴 때마다 난 자신에게 묻는다. “나는 불교로 개종했는가?” 개신교나 가톨릭이라는 하나의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나는 분명히 개종한 셈이다.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 참선을 하고 경전을 읽으면서 더 가까이 예수님 가르침에 다가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현각 1999 : 9).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모든 종교와 철학에는 동일한 가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시각”(정의채 1999 : 14)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일 것이다.

2. 불교의 성격 이해

기존의 개신교계에서처럼 불교를 종교적 측면이나 철학적 측면의 한 가지 방면에서만 파악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불교를 종교의 틀로서만 보려는 견해는 서양에서 중세 이후 개신교를 철학 및 과학과 적대시하여 종교에만 국한시킨 버릇에 기인한다(심재룡 1997 : 14, 주 1).

그러나, 불교는 깨달음의 철학이며, 해탈의 종교로서 철학과 종교의 양 요소를 다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두 영역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Raynolds and Hellisey 1989 : 7). 특히, 1980년대 이후 서양 지식인들의 불교에 대한 관심은 급증하고 있다.²¹⁾ 그들이 불교에 관심을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불교는 합리적인 철학(a rational philosophy)이란 점이다(Kewon 1996 : 125). 그리고, 현대의 종교는 윤리적 요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더욱 넓게 정의되고 있다. 이런 점에

20) 『현정론』, 『한불』 7, 224c9-12 : 曰書者 載道之具也 弘化之方也 見其書則知其道之可遵 不可遵..... 其道可遵..... 則豈以非吾所習而可棄之也.

21) 지난 100년간 북미주에서 출판된 불교학 관련 박사학위 논문들을 대상으로 서양의 불교학 연구 현황을 분석하고, 한국 불교학 연구의 방향을 모색한 데 대해서는 김종명 1999a 참조 그리고, 북미주 학계의 선불교 연구 현황에 대해서는 김종명 2000 : 7-20 참조

서 불교도 종교로 간주되고 있다(Eliade, vol. 11, 1993 : 283). 윤리학계에서도 현대 윤리의 대안으로 불교의 상황윤리가 받아들여지고 있다(길희성 2000 : 51-72; Kewon 1996 : 127).

한국불교도의 상당수가 기복신앙적 측면에서 불교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한국 불교계의 현실임은 부정하기 힘들다. 그리고, 한국의 개신교계가 불교를 기복종교로 간주하고 있는 배경도 이러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²⁾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또 다른 형태의 “주자적 불교 이해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지난 500년간 한국인의 삶을 규정한 성리학의 집대성자 주희(朱熹, 1130-1200)는 이하론(夷夏論)적 전제 위에서 자신이 살던 당시 중국 승려들의 비행을 근거로 “불교는 사회악”이란 틀 아래 배불론을 전개하였으며, 그의 배불론은 조선시대 억불정책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불교 이론, 불교 경전 내용 등에 대한 비판은 논리성, 구체성, 체계성을 결하고 있었다(김종명 1999b : 12). 그러므로, “모르면서 배척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장상잉은 중국 배불론의 근거를 제공한 한위(韓愈, 767-824)의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

따디엔[선사]이 한위에게 “그대의 학문과 지식을 헤아려 보면 [불교학자들인] 진(晉)의 포투청(佛圖澄)이나 요진(姚秦)의 로시(羅什), 혹은 소량(蕭梁)의 빠오즈(寶誌)에 비교할 만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한위가 “그렇지 못하다”고 하였다. 따디엔이 “그대가 그들보다 밝지 않은데도 그들이 따르고 섬기는 일을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하니 한위가 아무말도 하지 못하였다.²³⁾

그리고, 장상잉은 다른 전통을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를 제시하면서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다 :

나는 전부터 불교를 배척하려면 불서를 읽고 그 이치를 분명하게 파악한 후

22) 그러나 기복신앙 강조는 불교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기독교를 포함한] 한국종교 일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복을 비는 것 자체가 나쁘지는 않으나 한국종교인들의 경우 복을 받으려는 열의는 앞서나 복을 지으려는 노력이 적으며, 또한 이기적인 복을 지으려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윤원철 1999 : 52).

23) 『호법론』 T 2114.52.638c12-18 : 韓愈與大顛論議往復數千言 卒爲大顛一問曰 公自揣量學問知識 能如晉之佛圖澄乎 能如姚秦之羅什乎 能如蕭梁之寶誌乎 愈曰吾如斯人則不如矣 大顛曰公不如彼明矣 而彼之所從事者 子以爲非何也 愈不能加答.

우리 유교의 내용과 불교의 견해가 맞지 않는 부분을 따진 후 의심을 끊고 의혹을 판별하고서야 그것을 배척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일렀다.²⁴⁾

장상잉의 이러한 태도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현대의 종교인들도 귀감으로 삼을 만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중요한 것은 가르침이지, 그 가르침을 편 사람이나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와 관련, 장상잉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지금의 수 많은 승려들 중 옛 사람[석가모니]을 본받은 자는 거의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그것이] 어찌 불교의 잘못이겠는가? 그 사람들의 죄인 것이다.²⁵⁾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이 승려들의 타락을 이유로 배불의 당연성을 주장하자, 기화도 장상잉과 같은 논지의 주장을 전개하였다 :

공자의 문하에 있던 삼천명의 제자들 중 철인의 칭호를 받은 사람들은 10여명 뿐이었으며, 여래 [문하]의 문하에 바다같이 많이 모인 사람들 중 뛰어난 사람들도 10인을 넘지 않았다. 하물며 지금 성인이 돌아가신 지는 오래 되었고, 사람들의 근기는 약해졌는데, 어찌 사람들 각자에게서 가섭의 맑은 행동과 아난의 박식함을 바랄 수 있겠는가? 공자와 안회가 돌아가신 지 천년이 지난 지금 안연과 민자건 같은 분들이 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 대저, 승려가 승려됨은 오덕을 갖추고, 육화를 닦은 후에야 바야흐로 그 이름을 칭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름과 실체가 서로 부합되는 자는 대개 얻기가 어렵다. 숲에는 재목이 되지 못할 나무들도 있고, 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한 벼도 있다. … 어찌 실수가 있다하여 그 가르침까지 없애겠는가?²⁶⁾

사람이 아니라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시각은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견해다. 따라서, 현대 한국의 개신교계도 앞에서 논의된 서양의 지식인들 및 장상잉과 기화 같은 과거의 동양 지식인들의 불교에 대한 접근 태도를 바탕으로 불교를

24) 『호법론』, T 2114.52.638b17-20 : 故余嘗謂 欲排其教 則當盡讀其書深求其理 撫其不合吾儒者 與學佛之見 折疑辨惑 而後排之可也.

25) 『호법론』, T 2114.52.639a7-9 : 今之浮圖 雖千百中無一能髣髴古人者 豈佛法之罪也 其人之罪.

26) 『현정론』, 『한불』 7 : 224b18-c5 : 孔門三千 稱哲人者 十人而已 如來會海 稱第一者 亦不過十人而已 況今去聖愈遠 根機微劣 安得使人人 如迦葉之淨行 阿難之多聞乎 孔顏之後 千載之下 如顏淵閔子襄者 亦未之聞也 夫僧之爲僧 具五德修六和然後 方稱其名也 然名實相符者 蓋難其人矣 林有不在之木 田有不實之木…… 豈得因其失而廢其法也.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인류 구원론으로서의 종교

한국에서 종교다원주의가 가능하려면 한국의 종교들이 민족주의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강돈구 1994 : 411; 류성민 1994 : 115-117)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인간적인 선의 전망에 대한 고찰과 인간적인 선에 대한 주장을 더욱 명확하게 하지 않은 채 종교다원주의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며(트레이시 1999 : 295), 진정한 종교는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차옥승 1994 : 510)이란 점에서, 개신교든 불교든 제일의적인 과제는 인간이해에 목표를 두고(김재영 1994 : 171) 구원론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두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한 더욱 효과적인 방법론으로는 상호 참여와 협동을 통해 서로를 보다 풍요롭게 하려는 자세(김영태 1994 : 144)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른 이들을 착취하지 않고 자신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승려가 되었다”(버스웰 1999 : 9)는 버스웰²⁷⁾과 “혼자만의 인일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빌고 또 빈다”(현각 1999 : 9)는 현각의 인생관과 인간관은 각각 한국의 개신교계와 불교계 사이의 종교대화를 위한 소극적, 적극적 지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맺음말

한국의 종교간 대화운동은 자유주의적 개신교도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으나, 한국의 종교상황 개선에는 별 기여를 하지 못했으며, 한국 개신교의 주류를 이루는 보수적 개신교계는 여전히 불교계에 대해 가해자적 입장에서 왔다. 전형적인 다종교 국가인 한국의 경우에도 개신교계에 의한 훼손사건은 무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글쓴이는 이 글을 통하여 대화란 동등한 입장에서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개신교

27) 그는 1970년대에 태국과 홍콩에서 승려생활을 한 후 한국의 송광사에서 5년간 선승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현재는 한국불교와 중국불교의 전문가로서 미국 UCLA(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의 교수며, 동아시아언어문화학과(Department of East Asian Languages and Cultures)의 학장인 동시에 그 대학교 부설 한국학연구소(Center for Korean Studies)의 창설 멤버로서 소장직도 맡고 있다.

측에 의한 훼손사태가 먼저 종식된 후에라야 두 종교 전통간의 진정한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개신교 측에 의한 훼손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훼손사건은 개신교계의 반불교관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전제 아래 반불교관 형성의 원인과 영향을 검토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개신교를 한국에 전파한 서양선교사들의 불교관과 그 영향 아래서 편성된 한국의 교과과정 및 정부 정책의 일단면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종교간의 진정한 대화를 위한 대안으로서는 개신교계의 근본주의적 인식 극복과 불교의 성격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며, 이제 지구촌의 종교는 하나가 아니며 여럿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서로의 종교를 존중하면서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종교의 본래적 의미에 충실한 종교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역사상 종교내 혹은 종교간의 갈등도 사소한 부분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²⁸⁾ 그러므로, 한국 개신교와 불교도 서로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예수와 석가모니가 가르치고자 한 참 뜻을 되새기고 그것에 따른 실천적 삶의 길을 모색하는데 서로의 힘을 모으는 것이 서로의 삶과 평화를 위한 길이 될 것이다.

28) 한 예로, 인도에서의 불교학파들이 분열하게 된 동기는 적은 량의 소금을 소지하는 것이 계율에 위배되는가 혹은 위배되지 않는가 하는 등과 같은 사소한 계율에 대한 해석 차이 때문이었다(정성본 1993 : 707).

참고문헌

- 강돈구, 「한국 무교회운동의 종교사적 의의」,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편, 『종교다원주의와 종교윤리』, 서울 : 집문당, 1994.
- 공종원, 「법보시론 : 불교인의 고위공직 소외」, <법보신문> 2000년 4월 26일 3면.
<경향신문>, 「이희호여사 특정종교 편향」, 1999년 11월 22일.
- 기화(己和) 撰, 『顯正論』, 『韓國佛敎全書』 제7책 조선시대편, 1986; 서울 : 동국대학교출판부, 1990 : 217a-225c.
- 길희성, 「한국불교 정체성의 탐구 : 조계종의 역사와 사상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종교연구』 제2집(서강대학교 종교연구소, 2000. 5).
- 길희성, 「현대 윤리학의 위기와 상호의존의 윤리」, 『서강인문논총』 제11집(2000) : 51-72.
- 김영모, 『한국 지배층 연구』, 서울 : 일조각, 1982.
- 김영태, 「존희의 종교다원주의 철학의 기초」, 『종교다원주의와 종교윤리』, 서울 : 집문당, 1994.
- 김재경,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침시다-해불 무대책」, <현대불교> 불기2543년(서기 1999년) 10월 13일, 1면.
- 김재영, 「존희의 종교다원주의 철학연구」, 『종교다원주의와 종교윤리』, 서울 : 집문당, 1994.
- 김중서, 「개신교와의 대화 : 타종교의 입장」, 『종교다원주의와 종교윤리』, 서울 : 집문당, 1994.
- 김종명a, 「국내 불교학 연구의 방향-북미주의 연구 동향과 비교하여-」, 『한국불교의 오늘과 내일 : 평가와 제언』, 1999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 과제, 1-39쪽 (제출본).
- 김종명b, 「불교쟁론 : 주자의 불교비판」 상, 하, <법보신문> 불기 2543년(1999) 10월 13일, 12면; 10월 20일, 12면.
- 김종명, 「북미주 학계의 선불교 연구 현황」, 제1회 한국선학회 발표 논문(2000. 3. 18) : 7-20.
- 김종명c, 「한국 역사에 나타난 대표적인 논쟁 학설들의 철학적 분석」, 제3회 한민족철학자대회논문집 『한민족과 2000년대의 철학』(1999.8.17.-8.19) : 189-215.

- 데이빗 트레이시, 「인간복제와 대중세계 : 선을 위한 직관적 행위의 옹호」, 스티븐 제이 골드 외 지음, 『클론 and 클론』, 이한음 옮김. 서울 : 그린비, 1999.
- 로버트 버스웰 지음, 『파란 눈 스님의 한국선 수행기』, 김종명 옮김, 서울 : 예문서원, 1999.
- 류성민 (1994), 「종교다원주의와 종교윤리」, 『종교다원주의와 종교윤리』, 서울 : 집문당, 1994.
- 『문교 40년사』, 서울 : 문교부, 1988.
- 박기련, 「금배지 달려면 종교 있어야」, 〈불교신문〉 불기2544(서기 2000)년 4월 18일 3면.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종도서 『도덕·윤리』 연구 개발위원회, 『중학교 도덕 1』, 1995; 서울 : 교육부, 1999.
- 새뮤얼 헌팅턴 지음, 『문명의 충돌』, 이희재 옮김, 서울 : 김영사, 1997.
- 심재룡, 「한국 선불교의 특수성과 보편성」, 제3회 국제학술회의(1997, 11. 20-21) 논문집, 『한국불교사상의 보편성과 특수성』 : 3-15.
- 윤원철, 「미래의 한국불교에 바란다」, 『불교저널』 제1권 제3호(1999. 10) : 52-53.
- 윤이흠,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경험적 접근 : 한국종교대화운동의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종교다원주의와 종교윤리』, 서울 : 집문당, 1994.
- 이원규, 『종교와 이데올로기』, 서울 : 민영사, 1991.
- 이원규, 「종교적 배타성과 종교성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 『종교다원주의와 종교윤리』, 서울 : 집문당, 1994.
- 이원규, 『한국교회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 감리교신학대학교 출판부, 1998.
- 장상잉(張商英) 述, 『護法論』, T(大正新修大藏經) 2114.52.638a-646b. 昭和2년(1928); 東京 : 大正一切經刊行會, 昭和15년(1941).
- 장-프랑수아 르벨, 마티유 리카르 공저, 『승려와 철학자』, 이용철 옮김, 서울 : 창작시대, 1999.
- 전재성, 「일부 개신교인의 어리석음」, 〈현대불교〉 1999년 8월 25일 6면.
- 정성본, 『중국선종의 성립사 연구』, 1991; 서울 : 민족사, 1993.
- 정성운, 「미종교학회 한국혜불에 관심」, 〈현대불교〉, 1999년 2월 10일.
- 정성운, 「혜불 부추기는 '하늘나라'」, 〈현대불교〉, 1998년 9월 16일.
- 정의채, 「새천년 이끌어 갈 철학은 아시아의 생명존중사상」, 〈중앙일보〉 1999년 8월 27일 14면.

- 정진홍, 「종교다원문화의 인식을 위한 이론적 가설」, 『종교다원주의와 종교윤리』, 서울 : 집문당, 1994.
- 「종교별로 본 16대 의원 당선자」, 〈법보신문〉 2000년 4월 26일 15면.
- 차옥승, 「한국여성의 종교경험」, 『종교다원주의와 종교윤리』, 서울 : 집문당, 1994.
- 최준식, 「한국의 종교, 그 존재 당위성의 여부 문제에 대하여」, 『종교연구』 제18집 (1999년 가을) : 43-65.
- 〈한겨레〉, 「불교-군 또 종교편향 마찰」, 1999년 5월 24일.
- 현각, 「서울 돋보기 화계사의 불」, 〈한겨레〉 1999년 9월 28일 9면.
- 황필호, 「공자의 새로운 해석」, 『종교연구』 제17집(한국종교학회, 1999년 봄) : 275-92.
- 황필홍 외 지음, 『새로운 공동체를 찾아서』, 서울 : 도서출판 한때, 1997.
- Eliade, Mircea. *The Encyclopedia of Religion*, 16 vols. 1987; New York : Macmillian Publishing Company, 1993.
- Grayson, James Huntley. *Early Buddhism and Christianity in Korea*. Leiden : E. J. Brill, 1985.
- Kewon, Damien. *Buddhism :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 Paik, Lak-Geon George.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s in Korea 1832-1910*. P'yongyang : Union Christian College Press, 1927; Seoul : Yonsei University Press, 1980.
- Paik, Nak Choon(L. George Paik). "Tripitaka Koreana." In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32(1951) : 62-78.
- Raynolds, Frank E. and Charles Hallisey. "Buddhist Religion, Culture, and Civilization." In *Buddhism and Asian History*, edited by Joseph M. Kitagawa and Mark D. Cummings. 1987; reprint,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9, pp. 3-28.